

# 정부 실손의료보험에 메스 댄다

### 차관급 TF 가동 연말까지 개선안 마련... 비급여 진료 관리·보험료 산정·'간편청구' 시스템 등

정부가 약 3200만명이 가입해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메스 댄다.

이를 위해 사상 처음으로 관계 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연말까지 실손보험 제도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협의회'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보건복지부 차관과 금융위 부위원장이 공동 주재했고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보건사회연구원, 보험연구원 등 유관부처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정부는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실손보험 제도가 불합리하고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가입자와 의료기관이 과잉 진료를 일삼은 탓에 전체 실손보험료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마땅한 통제나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1년에 단 한 차례도 보험금을 지급받지 않는 약 2500만명의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수년 내 실손보험료가 2배 이상 오르고, 노년층들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실손보험 계약을 유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참석자들은 실손보험료 급등세 추이, 비급여 부분 과잉진료 가능성, 실손보험 관련 인프라 정교화 필요성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금융위와 복지부, 기재부 등은 이날



친환경차 개발 현황 점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현대자동차 마북환경기술연구소를 방문해 친환경차 개발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근본적인 실손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출범시키기로 했다.

보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차관급 TF가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TF는 이르면 오는 7월까지 올해 안에 추진할 과제들을 선정하고 8~10월 사이에는 보험업계 등 이해 당사자들을 포함시켜 실무자 회의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12월까지 차관급 TF에서 실손보험 개선안을 발표한다. 이동훈 금융위 보험과장은 "정부의 최우선 목표는 선량한 실손보험 가입

자들이 어떤 식으로 도울까 하는 것"이라며 "긴 호흡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크게 3가지 사안을 손보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TF는 우선 '갑시 사각지대'에 있는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비급여 의료행위 명칭(코드) 표준화, 실손보험 통계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과잉진료를 일삼는 문제 병원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또 합리적인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실손보험 상품이 보장하고자 하는 위험 범위 내에서 적정 위험율을 반영하고

그에 상응해 보험료를 책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수령 편의성 제고를 위해 '간편청구' 시스템 도입도 논의한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진료 받은 병원에서 즉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과정은 "올 하반기가 되면 개선된 실손보험 제도와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나올 것"이라며 "얼마나 큰 변화가 생길지 예측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내년부터는 달라진 제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인진수 기자

## 원·달러 환율 1180원대 넘어

### 6월 미 금리인상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

원·달러 환율이 두 달 만에 1180원을 넘어섰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173.7원)보다 6.3원 오른 1180.0원에 출발했다. 환율이 장중 1180원대에 올라선 것은 지난 3월17일(1180.0원 출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최근 환율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 12일 1162.2원에서 5거래일 동안 20원 가량 올랐다.

이같은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는 것은 미국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월 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노동부는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월대비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인 0.3%를 상회한 수치로 2013년 2월 이후 약 3년 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4월 산업생산도 전월대비 0.7% 올라 3개월 만에 반등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Fed) 인사들은 잇따라 6월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달러화 강세를 부추겼다. /인진수 기자

## 구글, 음성인식 '구글 홈' 올 가을 출시

### 아마존 '에코'와 경쟁 협난

집주인의 음성을 알아듣고 지시를 척척 수행하는 똑똑한 가정용 전자기기 시장이 아마존과 구글 등 전세계 정보통신(IT) 공룡 기업들의 각축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는 구글이 올해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구글 홈'으로 명명된 가정용 전자기기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구글 홈'은 가상 비서 소프트웨어를 장착하고 있어 사용자의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고, 기본적인 임무도 수행한다. 인터넷에 항상 연결돼 있어 정보를 검색해 주거나, 주문을 대행하고 음악도 들려주는 방식이다.

이 기기는 이용자의 기호나 취미, 구매 이력 등 정보를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더 정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NYT는 전했다.

구글은 올 가을 이 제품을 시장에 내놓을 예정이지만, 아마존과 협난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아마존은 이미 2년전 '에코'를 출시했다. 지금까지 300만 대를 판매하는 등 시장을 선점했다.

'알렉사'로 불리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에코는 사용자의 음성 명령에 따라 동작을 수행한다.

미국의 IT공룡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사물인터넷 시대를 앞두고 '가상 비서'로 불리는 운영 체제 선점 시도로 풀이된다. /인진수 기자

## “늘지형’ 불황 탈출 금리인하·추경 필요”

### 현대경제연구원, 금융위기 이후 불황 폭 점차 확대... ‘건전재정 내 수요 확대 선행돼야’

우리나라가 '늘지형' 불황에서 탈출하려면 금리인하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동시에 이뤄지는 정책조합(policy mix)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18일 현대경제연구원은 '현 불황기의 다섯 가지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한국 경제는 늘지형 불황에 빠져있다.

늘지형 불황이란 특정 분야에서 심각한 어려움은 없으나, 경제 전체가 눈에 띄는 것처럼 천천히 가라앉고 시간이 갈수록 침체의 강도가 누적되

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은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재정위기를 겪은 이후부터 최근까지 늘지형 경기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반적인 생산의 활동성이 약화되면서 불황의 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경제성장률은 2011년 3.7%를 기록한 이후 꾸준히 2%대에 머물고 있다.

2014년 3.3%로 잠시 반등하기도 했으나 지난해 다시 2%대로 내려앉았다.

한국 경제의 경기 선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제조업 경기도 이러한 늘

지형 불황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생산증가율이 이전보다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그 추세 자체가 우하향을 지속 중이다.

이밖에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멀티답형(경기 저점이 3개 이상), 수요충격형(수요에 따른 불황), 전방위형, 자생력 부족형 불황에 시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주요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우리나라가 늘지형 불황 탈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금리인하 및 추경 편성의 정책조합이 필요하다"며 "기

본적으로 현 불황의 원인은 수요 침체에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요 확대 충격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조합 효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만약 팽창적 통화정책과 확장적 재정정책이 없었다면 불황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 심각했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의 회복 조짐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선제적 금리인하와 추경 편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주 연구실장은 "재정지출 확대 정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단기적으로는 경제가 감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단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진수 기자

## 자율주행차 규제 완화 상용화 촉진

### 국토부,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정부가 자율주행차 등 미래형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시험운행 제도 혁신 ▲연구기관 확산 ▲상용화 연구·개발(R&D)을 통한 미래시장 선도 ▲미래형 이동수단 활성화 ▲부품산업 신성장 동력화 등이다.

국토부는 우선 자율주행차의 시험운행 구간 규정을 완화한다. 주행시험장 등 허가 요건도 완화한다.

또한 실증 연구 기반 인프라와 주행 데이터를 제공해 자율주행기술 연구

를 도울 계획이다.

소비가가 안심하고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 기준도 마련한다. 3대 핵심 안전성(주행교장·통신보안·DVD) 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다른 미래형 이동 수단 상용화에도 나선다. 트위치 등 신유형 첨단자동차가 외국 자동차 안전·성능 기준을 충족할 경우 국내 도로 운행을 우선 허용한다.

아울러 튜닝과 대체부품 등 전통적인 자동차 규제를 완화한다.

기준에 금지했던 자동차의 전체외관 튜닝 승인 대상도 완화한다.

/인진수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